

활기찬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김준아 학생에게 행복과 희망의 나날이 항상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준아 학생의 편지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향기로운 봄기운처럼 발랄한 마음이 전해지고 봄 햇살의 따사로움을 소중히 여기는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난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찾아내어, 웃음으로 우뚝 선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축하의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김준아양이 알아냈듯이 미래에 대한 긍정과 사람에 대한 희망은 바로 옆에 두고서도 찾기 힘든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실을 주위 사람의 덕으로 여기는 마음이 너무도 대견하여, 김준아양을 격려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전하는 봄소식이 따로 없으며, 삶의 인연과도 같이 큰 보답을 받았습니다.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도 불행을 호소할 만큼, 소모적인 삶이 고단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준아양이 느끼는 대로 베푸는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김준아양이 사랑과 희망을 넓게 나누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본래의 성품이고 잠재된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행복을 하나씩 꺼내어 가며 하고 싶은 일들을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공덕이고 마음가짐의 인연입니다.

봄소식으로 전해진 향기로운 마음가짐이 무성한 초록의 계절을 지나고 풍성한 결실로 이어져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3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